



지난 23일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전북지역 7개 지자체장과 전북 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내실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 '호응'

국민연금, 전북 6개 대학생 대상 '오픈캠퍼스' 운영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로 지역인재 양성 앞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3일 공단 본부 국민홀(전주시 덕진구)에서 전북지역 6개 대학교(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한일장신대)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이날 20일부터 23일까지 총 32시간 4일 과정의 '오픈캠퍼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5일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추진한 첫 결과물이다.

한편, '오픈캠퍼스' 마지막 날인 23일, 지역인재채용 활성화와 전북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직접 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성주 이사장 및 김승수 전주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등 전북지역 7개 지자체장과 전북 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인재 발굴 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하여 더욱 뜻 있는 만남의 시

간을 가졌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산학협력과정인 '오픈캠퍼스' 과정을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는 체험형 인턴 채용 시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하고 각 대학교는 2화점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120명)로 4일간 운영된 이번 '오픈캠퍼스' 과정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 기초연금제도와 장애인지원사업, 그리고 노후준비지원사업 등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홍보관과 기금운용본부 등 부서 탐방과 조별 토론,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다.

특히, 과정 마지막 날인 23일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인재 발굴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특강 후 "오늘 참여한 전북지역 대학생 120명이 우수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부는 더욱 내실 있는 청년일자리정책과 지역인재 발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올해 처음 운영한 공단의 '오픈캠퍼스' 과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역사 함께 할 전북인재 모여라!

전북은행, 50명 규모 신입직원 채용 실시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19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50명을 채용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2018년도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이다.

모집분야는 ▲일반인재 ▲지역인재 ▲IT·정보보호 ▲디지털 ▲통계 분야로 구분해서 모집 예정이며, 특히 전라북도 지역인재를 70% 이상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형 일정은 오는 9월 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9월), 1·2차 면접전형(10월) 등을 거쳐 10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인제상에 부합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

선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나이, 학력 등에 제한없이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만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은행 방극봉 인사지원부장은 "전북은행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 전북은행 창립 50년을 맞이하여 100년 은행으로 나아갈 새역사를 함께할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모집요강은 오는 9월 3일 채용설명회(전북은행 3층대강당, 14시)를 개최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신협, kt위즈 스폰서데이 개최... 마케팅 효과 특출

신협중앙회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특출히 누리고 있다.

2019-2020시즌 스폰서 계약을 맺은 kt위즈가 신생구단임에도 불구하고 6위를 기록, 올해 포스트 시즌의 마지막 티켓을 넘볼 정도로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KBO 막내 구단인 kt위즈 후원을 통해 신협중앙회는 프로야구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신협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신협은 kt위즈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신협 스폰서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수원kt위즈파크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신협 홍보부스에서 룰렛 게임을 통해 어부바 인형, 저금통, 장바구니 등 다양한 어부바 굿즈를 증정하는 '신협 어부바 행운 룰렛 EVENT'가 펼쳐졌으며, 신협 조합원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의 열띤 단체 응원전도 펼쳐졌다. 이날 KT는 롯데 자이언츠를 4-2로 역전승해 5위 NC 추

격을 이어갔다. 경기장 내부에서도 신협홍보 영상 송출, 전광판을 통한 신협 퀴즈이벤트, 어부바 캐릭터 시타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홈아울러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이날 시구자로 나서 눈길을 끈 신협중앙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즌 kt위즈프로야구단이 좋은 경기를 보여준에 따라 신협의 스포츠 마케팅이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며, "오늘 진행되는 스폰서데이를 통해 국내야구팬들에게 신협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kt위즈와 2019-2020시즌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으며, kt위즈 선수들은 현재 신협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고 있다. 또한 룰렛보드광고,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립된 공간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키야박스를 신협만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진행

R&D 기획코칭도 10월까지 전주·익산·군산 3회 무료 운영 예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국가 지원 R&D 과제 신청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R&D 기획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사업 이해도가 낮은 전북지역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R&D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 수행중인 기업,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지원과제 안내'에 이어 기업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과제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함께 '사업수행관련 일반절차, 평가대응 요령, 과제수행 실무' 순으로 진행됐다.

이을러, 8월 말부터 R&D 수행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R&D 기획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R&D 과제기획 방향설정,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코칭 일정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주, 9월 익산, 10월 군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작년 대비 교육 참석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R&D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중 교육과 코칭을 통해 국가 R&D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수행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재현 주무관(063-210-645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LX, 한국의 토지정보화 기술 캄보디아에 전수

마스터플랜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춰 한국형 공간정보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파했다.

LX는 지난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협력체계 시범전력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양국 간의 선린우호 증진 기여는 물론, 향후 캄보디아에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수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체이 탄(Chhy Than)기획부 장관과 톤 타브락(Toun Thavrak)기획부 차관, 하스버튼(Has Bunton)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LX 김택진 국토정보본부장

등 정부인사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LX는 국내 공간정보 중소기업인 투이컨설팅과 지오투정보기술 등 두 곳과 함께 LX 컨소시엄을 구성해 캄보디아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지역 공간정보 DB구축, 공간정보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실시해왔다.

김택진 본부장은 "LX는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자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X는 캄보디아 정부와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현대화'를 위한 후속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기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첫 '월간 이스타' 인천-상하이 노선 선정

이스타항공이 매달 취항하고 있는 노선 중 시즌과 트렌드 등을 고려해 여행하기 좋은 노선을 선정 추천하고 여행준비부터 현지정보와 관련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월간 이스타'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월간 이스타는 여행준비 과정부터 추천 명소, 음식, 축제 등 다양한 취향지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노선을 직접 다녀온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여행 꿀팁과 제휴업체까지 소개하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월간 이스타 9월호'에서 추천 취향지로는 중국 상하이가 선정됐다.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이스타항공에서 추천하는 9~10월에는 상하이'라는 컨셉으로 상하이 방문을 위한 비자발급 정보를 비롯해 추천명소와 노선 관련 이벤트 등을 소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